

# 『性理群書句解』의 내용과 편찬경위

金 允 濟\*

1. 머리말
2. 四庫全書本
3. 奎章閣 所藏本
4. 藏書閣 所藏本
- 1) 『性理群書句解』前集
- 2) 後集의 『근사록』
- 3) 後集의 『근사속록』과 『근사별록』
5. 맺음말

## 1. 머리말

『性理群書句解』는 중국 宋의 학자 熊節이 편집하고 熊剛大가 集解한 책으로 알려져 왔다.<sup>1)</sup> 熊節은 朱熹의 門人으로, 宋代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7인(周敦頤·張載·程顥·程頤·邵雍·司馬光·朱熹)의 글을 문체별로 분류하여 이 책을 편집하였다. 여기에 朱熹의 再傳弟子인 熊剛大가 註를 달아 이 책을 완성한 것이다. 이 책은 明의 成祖代 『性理大全』 편찬 전까지 『近思錄』과 함께 성리학 입문서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성리대전』은 宋儒의 중요한 著作과 語錄을 모아 편찬한 성리서인데, 그 이전까지 宋儒의 저작이나 문장을 집성한 책은 『성리군서구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리대전』 편찬시 諸儒의 語錄은 『근사록』에서 취했고, 遺文은 『성리군서구해』에서 취해 넓혔으며, 『성리대전』의 ‘성리’라는 용어도 『성리군서구해』에서 따왔다고 한다.<sup>2)</sup> 이처럼 『성리군서구해』는 『성리대전』의 편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性理’라는 명칭도 『성리군서구해』로 인해 세상에 크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sup>3)</sup>

조선에서도 일찍이 이 책이 수입되어 학자들간에 많이 읽혀졌다. 특히 15세기부터 16세기 前半까지 이 책에 관한 자료가 자주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성리학에 대한 초기 이해단계에서 성리학 입문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世宗代에는 甲寅字로 간행되는 등 서지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책 이름까지 잘못 이해되는 등 우리에게 아직까지 낯설기만한 존재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자료부족과 명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필자 : 규장각 학예연구사

- 1) 원래는 『性理羣書句解』로 표기되었는데, 후대에는 ‘羣’과 ‘群’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모두 ‘群’으로 통일해 표기한다.
- 2) 『四庫全書總目』 권92, 「子部-儒家類」의 「性理群書句解」
- 3) 『四庫全書總目』 권93, 「子部-儒家類」의 「性理大全書」

이 책의 원래 명칭은 『性理群書句解』이지만 흔히 줄여서 『性理群書』로 불렀는데, 이 책의 명칭에 대한 오해는 바로 이 『성리군서』라는 약칭 때문에 생겨났다. 『성리군서』라고만 할 경우 『성리군서구해』를 다른 책으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다른 책을 『성리군서구해』로 혼동하기 쉬웠던 것이다. 실제로 前者의 경우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이나 자료에 대한 해제집에서 종종 『성리군서』를 “성리학 관련서적” 혹은 “성리학의 여러 책”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sup>4)</sup> 또 後者の 경우 『性理大全』을 간혹 『性理群書大全』이나 『性理群書集覽大全』으로 표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성리대전』을 『성리군서구해』로 혼동할 우려도 있다.<sup>5)</sup>

이 책의 명칭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움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성리군서』 『성리군서구해』 외에도 『音點性理群書句解』 『新編性理群書句解』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등으로 부르는 바람에, 어느 것이 정확한 이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이다. 그러나 이 책에 관한 여러 명칭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性理群書’ + ‘句解’ + ‘音點’ + ‘新刊(新編)’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결국 이 책의 내용이나 체제, 간행경위 등을 書名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명칭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의 내용이나 형식, 편집과정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가 현재로서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우선 『성리군서구해』의 전체 내용을 알려주는 완질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편집자와 集解者인 熊節이나 熊剛大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없으며, 편집경위나 간행경위를 알려주는 서문이나 발문도 없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이 책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자료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며, 이 점은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영인된 四庫全書에는 『性理群書句解』의 前集만 수록되어 있다.<sup>6)</sup> 본문 앞 「提要」에서 이 책의 내용이나 熊節·熊剛大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그나마 이것이 가장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사전류나 해설서에서도 대개 이를 인용하고 있다. 또 『福建藝文志』에는 『性理群書句解』 前集 뿐 아니라 後集에 대한 해설도 수록하고 있는데, 後集에 관해 별도의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거의 유일하다.<sup>7)</sup> 여기서는 後集의 경우 편찬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하면서 여러 설을 소개하고 있다. 또 後集의 권수에 대해서도 異見을 소개할 정도로, 『성리군서구해』, 특히 後集에 관해서는 정설이 별로 없는 형편이다.

4) 『世宗實錄』 권64, 세종16년 6월 乙丑: 국역본 『세종장헌대왕실록』 제10책 242쪽  
『世宗實錄』 권87, 세종21년 12월 壬寅: 국역본 『세종장헌대왕실록』 제14책 73쪽  
『奎章閣所藏文集解說』 제1책 198쪽, 제2책 437쪽

5) 『性理大全』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藏書目錄(古書篇1)』에는 『性理群書大全』으로,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 「子部-儒家類」에는 『性理群書集覽大全』으로도 표기되고 있다.

6) 『文淵閣四庫全書』 영인본 제709책에 수록된 『성리군서구해』는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의 前集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7) 『福建藝文志』 권41, 「子部1」의 「儒家3-宋」 「性理群書句解」條와 「性理群書句解後集」條 참조.

한편 일본의 경우 朝鮮 刊本을 저본으로 하여 寬文 8년(1668)에 和刻本 『성리군서구해』를 간행하였다.<sup>8)</sup> 이 때 『성리군서구해』 前集만 翻刻하였지만, 이는 일본의 성리학 수용에 있어 조선에서 간행한 성리서들이 표준이 될 정도로 중시되고 있었다는 사실과,<sup>9)</sup> 아울러 일본에서도 화각본으로 번각될 정도로 이 책이 활용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성리군서구해』 자체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사전적 해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성리군서구해』에 대한 내용이나 체제, 편집이나 간행경위 등 이 책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이 책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고증이나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 책의 전모를 밝혀 그 윤곽을 드러내주는 작업도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리군서구해』의 각종 판본들을 비교 검토하여 이 책의 내용 및 체제, 편찬 경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四庫全書本을 통해 『성리군서구해』 前集을 『성리대전』 및 『근사록』과 비교함으로써 前集의 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그 후 규장각 소장본을 통해 『성리군서구해』 前·後集을 概觀하고, 마지막으로 장서각 소장본을 통해 前·後集의 내용을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後集은 『근사록』 『근사속록』 『근사별록』을 수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들 각각의 책을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특히 後集의 편찬자나 편찬시기, 체제 및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자 한다.

## 2. 四庫全書本(『性理群書句解』 前集)

현재 四庫全書에 수록된 『성리군서구해』의 「提要」를 보면, “宋 熊節 編, 熊剛大 註”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항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熊)節의 字는 端操이고 建陽人이다. 벼슬은 通直郎 知閩清縣事를 지냈다. (熊)剛大 역시 建陽人이다. 蔡淵과 黃榦에게 수업을 받았다. 嘉定(1208~1224) 중에 進士가 되었는데, 스스로는 覺軒의 門人이라고 칭했다. 朱子를 제향하는 建安書院長을 지냈는데 그 관력은 알 수 없으나 … 理宗代의 사람이다. (熊)節은 朱子에게서 수업을 받았는데, 이 책은 宋 諸儒의 遺文을 모아 분류하여 편집한 것이다. 맨 먼저 濂溪·明道·伊川·橫渠·康節·涑水·考

8) 中央圖書, 1988, 『性理群書句解』(和刻影印 近世漢籍叢刊) 『中國思想叢書』46

9) 일본에서 간행한 和刻本 『心經附註』도 이황의 「心經後論」이 부록된 판본으로, 이 역시 朝鮮刊本을 저본으로 했음을 알려준다. 金種錫, 1989, 「朝鮮儒學史에 있어서 心經附註의 사상사적 위치」, 영남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 논문.

10) 岡田武彥, 「性理群書句解題」 『中國思想叢書』46 中央圖書(1988년 影印)

亭의 遺像과 傳道支派를 나열하고, 그 뒤 贊·訓·戒·箴·規·銘 등등을 수록하고 맨 뒤에 七賢의 行實로 끝을 맺었다. … 明 永樂 중 『성리대전』을 편찬할 때 諸儒의 말은 『근사록』에서 취해 넓혔고, 글은 이 책에 근본해서 넓혔다. ‘性理’라는 이름도 여기서 따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책의 글은 비록 翫見이지만 단초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熊剛大의 註는 童蒙들의 교육을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淺近하여 보잘 것 없으나, 원래 이 책에 붙여져 세상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四庫全書에) 그대로 두었다.

여기서는 編者와 註者의 약력, 책의 내용, 가치와 평가 등 간략하지만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각 부분, 특히 編者와 註者에 대한 기록은 너무 소략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이력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熊節의 號는 復齋인데 학자들은 그를 鼇峯선생으로 칭하기도 했다.<sup>12)</sup> 初名은 汝舟, 字는 元用이라고도 하며 書室을 智仁堂이라고 했다. 建陽縣 崇泰里 사람으로, 10세부터 『주역』을 읽어 易에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며, 慶元 5년(1199)에 進士가 되었다. 저서로는 『성리군서』23권, 『中庸解』3권, 『智仁堂稿』10권, 『論語集說』13권이 있다고 하는데, 『성리군서』는 당연히 『성리군서구해』일 것이다.

熊剛大 역시 建陽縣 崇泰里 사람으로, 號는 古溪인데 勿軒으로 부르기도 했다.<sup>13)</sup> 嘉定 7년(1214) 진사에 급제하여 建安儒學教授가 되었고 建安書院長을 지냈다. 저서로는 『性理集解』, 『詩經註解』, 『小學集解』가 있다고 하는데, 『성리집해』는 바로 『성리군서구해』를 集解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熊節은 朱熹의 門人이고, 熊剛大는 朱熹의 문인인 黃榦·蔡淵의 문인이므로, 熊剛大 역시 朱熹의 再傳弟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熊剛大의 경우,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황간이나 채연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宋元學案』의 경우는 아예 채연의 문인으로 수록하고 있지만,<sup>14)</sup> 스스로는 覺軒의 제자로 칭했다고 한다. 각헌은 뒤에 살펴볼 『성리군서구해』 後集의 일부를 편집한 蔡模로서, 九峰 蔡沈의 아들이자 蔡淵의 조카이다. 이 蔡氏 일파는 西山 蔡元定の 자손들로, 朱子 門下의 큰 흐름을 이루어 『宋元學案』에 「西山學案」과 「九峰學案」 등 두 개의 독립된 학안이 설정될 정도로 많은 朱門高弟를 배출한 가문이다.<sup>15)</sup> 따라서 熊剛大

11) 熊節과 熊剛大에 대한 약력은 다음의 여러 책을 참고로 하여 보충하였다. 이하 별도로 註하지 않는다.

『中國儒學百科全書』(1997,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中國人名大辭典』,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福建藝文志』, 『建陽縣志』(1986, 建陽縣地方志編纂委員會), 『宋元學案』

12) 熊節에 대한 사전류의 해설 가운데 ‘鼇峯’이란 별칭은 보이지 않는데,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의 「목록」 중 「近思錄編集諸儒註解」에서는 熊節을 “鼇峯先生熊氏”라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근사록』 註文에서는 熊節의 註解를 “熊氏曰” 혹은 “熊鰲峯曰”이라 표기하고 있는 바, ‘鼇峯’은 ‘鰲峯’으로도 썼음을 알 수 있다.

13) 사전류에는 ‘勿軒’이라는 號가 보이지 않으나, 『性理大全』 卷首의 「先儒姓氏」에는 「建安熊氏」條에서 “剛大 勿軒”으로 기록하고 있다.

14) 『宋元學案』 권62, 「西山蔡氏學案」의 「西山蔡氏學案表」 참조

의 스승이 채연이든 채모이든 그가 이 蔡氏 가문의 영향을 받은 朱子學者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다만 熊剛大는 蔡模가 그 일부를 편집한 『성리군서구해』 後集에도 간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채모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그의 제자로 자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熊節이 편집하고 熊剛大가 주를 붙인 『性理群書句解』는 23권으로 되어 있다.<sup>16)</sup> 熊節은 宋代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周敦頤·張載·程顥·程頤·邵雍·司馬光·朱熹 등 7인의 글을 문체별로 분류하여 이 책을 편집하였고, 여기에 熊剛大가 註를 달아 集解本이 완성되었다. 그 안에 사마광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가 있지만, 朱熹 본인이 생전에 사마광에 대해 “학문은 비록 다르지만, 道에 있어서는 같은데로 귀일한다”며 존중했는데, 朱熹에게서 직접 배운 熊節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七賢에 포함시켜 수록했다고 한다.<sup>17)</sup> 전체적으로 볼 때 7현의 글이 대부분이나 그 가운데는 朱熹의 저술이 가장 많다. 그 외에도 朱熹의 선배나 동료, 제자가 지은 글도 간혹 실었는데, 1편 이상의 글이 수록된 학자를 모두 열거하면 楊時·羅仲素·范浚·呂大臨·蔡元定·黃榦·張栻·胡宏·眞德秀·范質·蘇軾·程端蒙 등 12인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마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문적 색채가 다른 인물도 포함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듯하다. 이에 대해 『四庫全書總目』에서는 범질은 朱熹가 『小學』을 편찬할 때 그 詩를 수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며, 소식의 경우는 사마광의 行狀을 지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하고 있다.

四庫全書에 수록된 『성리군서구해』의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권1: 傳道支派·贊
- 권2: 訓·戒·箴·規
- 권3: 銘·五言短句·五言長句
- 권4: 五言長句·七言短句·七言長句
- 권5: 賦·序
- 권6: 序
- 권7: 記
- 권8: 說·錄·辯·論
- 권9: 圖(河圖洛書)
- 권10: 圖(先天圖)

15) 蔡氏 가문의 계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蔡發 — 蔡元定(西山)	{	蔡淵(節齋)
		蔡沆(復齋)
		蔡沈(九峰) — 蔡模(覺軒)

16) 정확하게는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前集이지만, 四庫全書本에는 前集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성리군서구해』로 부른다. 이하 제2장에서의 『성리군서구해』는 모두 前集을 말한다.

17) 『四庫全書總目』 권92, 「子部·儒家類」의 「性理群書句解」

권11: 圖(太極圖)

권12~13: 書(正蒙)

권14~16: 書(皇極經世書)

권17~18: 書(通書)

권19: 文

권20~23: 行實

권1~8까지는 各體의 문장을 수록했으며, 권9~18까지는 저작, 권19 이하는 祭文이나 行狀을 수록하였다. 1권에는 傳道支派와 贊이 실려 있는데, 傳道支派는 7현의 師承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개인별로 그들의 스승과 門人을 수록하고 있다. 「晦庵先生傳道支派」에 보면 이 책의 편집자인 熊節과 후술할 蔡模가 朱子門人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贊」에는 7현의 「遺像贊」이 앞에 나오고, 뒤에는 진덕수의 「心經贊」 등 贊文이 4편 실려있다. 「遺像贊」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遺像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의 四庫全書本 『성리군서구해』에는 없다. 2권부터는 宋儒가 지은 訓·戒·箴·規·銘·詩·賦·序·記·說·錄·辯·論 등 13종류의 각종 詩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1권의 贊까지 합치면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문체는 모두 14종으로 거의 모든 문체를 망라하고 있다. 9권부터 시작되는 저작의 경우 邵雍의 「先天圖」1권·「皇極經世書」3권, 周敦頤의 「太極圖」1권·「通書」2권, 張載의 「正蒙」2권 등 朱熹 이전의 복송 성리학자 3인의 저술 위주로 되어 있다. 19권의 文에는 祝文·祭文 등이 6편 실려있고, 20권 이하는 7현에 대한 行狀·年譜·墓誌銘 등 行實이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부에 宋儒의 각종 詩文이 수록되고 후반부에는 대개 문집에서 雜著로 분류되는 그들의 저술이 나오며, 마지막에 그들에 대한 行狀類가 수록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문집의 목차나 체제와 비슷하다. 따라서 이 책은 四部分類法에 의하면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 편찬한 集部(總集類)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체제로만 볼 때 문집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내용상 宋儒의 글 중에서도 성리학 공부에 필수적인 중요자료만 뽑아 수록했으며, 문집과는 달리 상세한 註解가 달려있어 일반 문집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성리군서구해』가 이렇게 문집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성리대전』 편찬시 宋儒의 시문 등 각종 문장이나 저작의 경우 이 책에서 발췌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성리대전』과의 비교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보자.

『성리대전』의 경우 전체 7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권1: 太極圖說

권2~3: 通書

권4: 西銘

권5~6: 正蒙

권7~13: 皇極經世書

권14~17: 易學啓蒙

권18~21: 家禮

권22~23: 律呂新書

권24~25: 洪範皇極內篇

권26~27: 理氣

권28: 鬼神

권29~37: 性理

권38: 道統·聖賢

권39~42: 諸儒

권43~56: 學

권57~58: 諸子

권59~64: 歷代

권65: 君道

권66~69: 治道

권70: 詩·文

1권~25권까지는 宋代 성리학자의 중요저작을 수록했으며, 26권~69권까지는 성리학 관련 분야를 13개의 주제로 나누어 宋儒들의 어록을 편집했으며, 권70에 詩文을 실었다. 저작은 『성리군서구해』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卷帙을 이루어 周敦頤의 「太極圖說」 1권·「通書」 2권, 張載의 「西銘」 1권·「正蒙」 2권, 邵雍의 「皇極經世書」 7권, 朱熹의 「易學啓蒙」 4권·「家禮」 4권, 蔡元定の 「律呂新書」 2권, 蔡沈의 「洪範皇極內篇」 2권 등 모두 25권을 수록하였다. 이 중 「태극도설」 「통서」 「정몽」 「황극경세서」 등 4편은 『성리군서구해』에 수록된 것이다. 한 권 분량인 詩文의 경우 『성리군서구해』보다 수록된 文體의 종류도 적고 수록 편수도 대폭 줄었다. 『성리군서구해』에는 詩를 비롯하여 箴·銘 등 14종류의 각종 문체가 망라됐으나, 여기서는 詩와 贊·箴·銘·賦 등 5종의 문체만 수록하였다. 그러나 수록된 문체의 경우 상당 부분이 『성리군서구해』의 詩文과 일치한다.

특히 詩의 경우, 『성리대전』에 수록된 詩는 대부분 『성리군서구해』에 실려있는 것인데, 『성리대전』의 해당 詩句를 풀이한 註解를 보면 거의 모든 詩에 있어서 “熊氏剛大曰”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성리군서구해』에 수록된 詩의 註解 중 일부로, 결국 『성리대전』의 편찬자는 수록 대상 詩의 選別은 물론 그 註解까지 『성리군서구해』에서 따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리군서구해』는 23권으로 모두 19인의 저술을 수록한 반면, 『성리대전』은 70권으로 모두 120家の 설을 채록하였다고 하니, 그 분량이나 수록범위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는 『성리대전』이 황제의 명령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찬된 것에 비해,

『성리군서구해』는 개인이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일단 수록된 글들의 경우 『성리대전』은 본문 위주이나 『성리군서구해』는 본문보다 더 많은 분량의 註를 달아 훨씬 상세한 풀이를 하고 있다. 또 『성리대전』에서는 註를 달더라도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모아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성리군서구해』에서는 한 문장 안에서 구절마다 註를 달아 逐句解釋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성리대전』에는 거의 註를 달지 않고 본문만 수록한 詩文의 경우에도 『성리군서구해』에서는 구절마다 많은 註를 달아놓았다. 이는 『성리대전』이 워낙 많은 글들을 수록하려다보니 부득이 본문 위주로 편집된 반면, 『성리군서구해』는 初學者를 위한 성리학 입문서라는 점을 의식해 보다 상세한 註를 달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성리군서구해』의 逐句解釋의 경향 때문에 이 책의 서명에 ‘句解’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으로 짐작된다. 즉, ‘句解’란 ‘逐句解釋’의 뜻으로 구절을 逐條의 풀이하되, 번잡하게 널리 인용하거나 典據하지 않고 문장 要旨의 소통을 위주로 한다고 한다.<sup>18)</sup> 이 책의 집해자인 熊剛大는 註를 이용하여 句節別로 해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句解 역시 인용이나 典據에 사용하지 않고 대개 구절의 내용 풀이에 주력하고 있다. 『성리군서구해』의 이러한 양상은 분명히 ‘逐句解釋’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검토할 『성리군서구해』 後集에서도 이런 ‘逐句解釋’의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책 전체의 註解 방식을 일관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句解’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도서 가운데 ‘句解’라는 용어를 서명으로 사용한 책이 여러 종 있다. 『句解孔子家語』 『句解南華真經』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 등인데,<sup>19)</sup> 서명상 ‘句解’라는 용어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 책들은 註解 방식에 있어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즉, 문장 중간 중간의 句節에 곧바로 상세한 註解를 달아 해당 句節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析句·明字’ 하여 句讀를 통하게 하고 字義를 밝혀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sup>20)</sup>

한편 熊剛大가 집해한 句解 가운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註解는 외견상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때 흔히 쓰는 “愚按” 혹은 “愚謂”이라는 용어가 註解 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리대전』에 수록된 詩의 註解는 대개 “熊氏剛大曰”로 시작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성리군서구해』의 해당 부분과 비교해보면 그 註解 속에 일부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리군서구해』 집해시 熊剛大가 諸家の 註解를 모으

18) 『漢語大詞典』 3책, 「句解」

所謂句解者 逐句詮釋 不事繁徵博引 唯以疏通大旨爲主

19) 『句解孔子家語』〈奎中 1435〉, 『句解南華真經』〈奎 1680〉, 『精選東萊先生左氏博議句解』〈奎中 1630〉

20) 『句解南華真經』〈奎 1680〉, 卷首「林經德序」



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도 덧붙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熊剛大는 자신의 의견을 揭示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것이 자기의 견해인지 불분명하게 되어 버렸는데, 이는 熊剛大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註解도 마찬가지이다. 즉, 句解의 목적이 인용이나 전거를 알리는데 있지 않고 내용 풀이에 초점을 둔 만큼, 자신을 포함하여 諸家의 설을 인용함에 일일이 그 전거를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 즉 아주 상세하면서도 句節마다 註解를 가하는 句解는 해당 句節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결국 초학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동을 위해 편찬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또 체제를 비교해 보면, 『성리대전』에서는 詩文의 분량을 대폭 줄인 대신, 절반 이상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주제별 어록집을 새로 첨가한 점이 주목된다. 저작의 경우 『성리군서구해』에는 후반부에 수록한 반면, 『성리대전』에서는 맨 앞에 수록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성리군서구해』의 앞부분에 비중있게 실린 각종 詩文을 『성리대전』에서는 줄여서 맨 끝에 수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리대전』에서는 詩文보다는 성리학의 대표적인 저작들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성리군서구해』가 비록 『성리대전』에 비해 분량이나 수록범위 또는 인용인물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宋代 성리학자들의 중요저작이나 시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다만 차이점은 『성리대전』에서는 이 외에도 宋代 성리학자들이 남긴 어록이나 격언 등의 언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실었다는 점인데, 이렇게 선유들의 어록을 편집하여 책을 만든 것은 『근사록』으로부터 시작한다.<sup>21)</sup>

『근사록』은 이미 알려진 대로 朱熹가 呂祖謙과 더불어 周敦頤·程顥·程頤·張載 등 북송대 성리학자 4인의 어록 622條目을 문집 등에서 뽑아, 14개 주제로 분류하여 성리학 입문서로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의 목차 겸 주제는 道體·爲學大要·致知·存養·克己·家道·出處義利·治體·治法·政事·教學·警戒·辨異端·觀聖賢 등 14개이다. 이 책은 1주제당 1권씩 모두 14권으로 비교적 적은 분량이지만, 周敦頤의 「태극도설」을 맨 앞에 놓은 것을 비롯하여, 매권마다 周敦頤로 시작하고 二程을 다음에, 張載를 마지막에 놓고 있으며, 邵雍을 배제하는 등 朱熹의 哲學體系와 道統觀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책이다.<sup>22)</sup> 朱熹 스스로 14편의 제목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篇次를 정함에 있어서도 학습단계를 염두에 두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즉, 14편의 주제를 크게 6개의 범주로 나누어 각각 분속시켰는데, 예를 들면 道體는 「求端」에, 爲學·致知·存養은 「用力」

21) 『四庫全書總目』 권93, 「子部·儒家類」의 「性理大全書」

考自漢以來 弟子錄其師說者 始於鄭記鄭志 是即後世之語錄 其衷諸儒之言以成一書者 則古無是例 近思錄其權輿矣

22) 張載는 二程보다 연장이기 때문에 앞에 놓아야 하지만, 朱熹의 기준으로 볼 때 周敦頤는 理學의 開祖, 二程은 理學의 成立, 張載는 理學의 補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사록』도 이런 순서로 편찬되었다. 또 邵雍은 유학의 정통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근사록』에서는 수록하지 않았다. 陳榮捷, 1982, 『朱子之近思錄』 『朱學論集』(臺灣, 學生書局) 참고

에, 克己·家道·出處義利는 「處己」에, 治體·治法·政事·教學·警戒는 「治人」에 분속하고 나머지 「辨異端」과 「觀聖賢」은 그 자체를 하나의 범주로 삼았다.<sup>23)</sup> 결국 「求端」에서 시작해서 「用力」·「處己」 등 修己를 거쳐 「治人」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 「辨異端」 「觀聖賢」한다는 것이다. 이를 각각의 범주에 분속된 14편의 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학문에 대한 단서로서 道體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한 뒤, 爲學·致知·存養 등에 힘을 쏟고, 克己·家道·出處義利 등을 통해 修己를 이루고, 治體·治法·政事·教學·警戒 등으로 治人을 완성한 후, 마지막으로 異端을 변별하고 성현을 본받는 단계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朱熹가 생각한 이상적인 학습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사록』의 주제나 목차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은 결국 朱熹가 학습단계를 염두에 두고 『근사록』을 편집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처럼 朱熹의 치밀한 의도 아래 편찬된 『근사록』이 성리학 입문서로서 널리 각광받았던 사실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근사록』이 지니는 이러한 내용상의 장점을 『성리대전』 편찬 당시의 학자들이 간과했을 리가 없다. 明 永樂帝 당시 주자학이 體制教學으로서 官學化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형성된 朱子 존숭의 분위기 속에서,<sup>24)</sup> 朱子が 편집한 『근사록』은 자연스럽게 『성리대전』 편찬의 기본자료로 이용되었다. 더구나 『근사록』의 내용적 우수성 외에도 어록의 모음이라는 체제상의 특징은, 『성리대전』 편찬자들에게는 『성리군서구해』가 지니는 부족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성리대전』을 편찬할 때 諸儒의 遺文은 『성리군서구해』에서 따오고, 語錄은 『近思錄』에서 뽑아 확충하게 된 것이다. 『근사록』의 14개 주제를 『성리대전』의 권 26~69에 수록된 13개 주제와 비교해볼 때, 「諸子」 「歷代」 등의 항목이 없는 등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리학의 관점에서 학문과 수양, 혹은 修己治人의 요체를 망라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성리학의 기본 지식을 몇 개의 주제로 나누고 선현의 어록을 뽑아 분류·편찬된 『근사록』을 토대로 하여 『성리대전』의 일부가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성리대전』은 『四庫全書總目』에서 지적한 것처럼, 『성리군서구해』와 『근사록』을 바탕으로 해서 편찬되었으며, 그 내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성리대전』의 권1~25까지와 권70의 著述 부분은 『성리군서구해』에서, 권26~69까지의 語錄 부분은 『근사록』에서 모델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朱熹의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朱子語類』가 『朱子文集』 못지않게 중시되는 것처럼, 性理書로서 체제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宋儒가 남긴 著述과 語錄의 종합화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성리대전』 편찬 당시 기존의 성리서 중 著述集인 『성리군서구해』와 語錄集인

23) 『近思錄』 卷首, 「識」(朱熹, 1175)

24) 趙永祿, 1989, 「陽明學의 성립과 전개」 『講座中國史 IV』(서울대 東洋史學研究室 編)

『근사록』에 관심을 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성리서로서 『근사록』과 짝을 이루는 『성리군서구해』의 위상을 『근사록』과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성리군서구해』는 宋儒의 문장을 채록한다는 점에서 문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성리서라는 중요한 목적 때문에 내용이나 체제상 개인의 문집과 동일할 수는 없었다. 성리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문장이나 저술에 국한해서 수록해야 했으며, 내용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 부득이 상세한 註解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일반적인 문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리서로서의 본격적인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본격적인 성리서라고 하면 기존의 문집 체제에 따라 자료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편찬방침을 가지고 그에 따라 자료를 가공하거나 분류하여, 자신이 의도한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쉽도록 배려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사록』의 경우 朱熹는 학자들의 학습단계를 『근사록』의 목차에 일치시킴으로써, 『근사록』 공부를 통해 단계적으로 학문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修己治人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성리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식견 위에서 자신이 제시한 학습단계에 따라 자료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수준높은 안목이 요구되는데, 朱熹와 달리 熊節이나 熊剛大는 그러한 학문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熊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집의 체제에 따라 자신이 선별한 성리학자의 글을 모아 초보적인 단계의 성리서를 편집하였고, 熊剛大는 난해한 句節에 대한 註解를 붙이는데 그쳤던 것이다. 熊節이 편집하고 熊剛大가 集解한 이 책은 이런 의미에서 『성리군서구해』라는 서명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본격적인 성리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후대에는 『근사록』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 文은 꺾뎨이다” 혹은 “熊剛大의 註는 童蒙들의 교육을 위해 만든 것으로 淺近하여 보잘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sup>25)</sup> 이는 熊節이나 熊剛大의 학문이 朱熹에 미치지 못한다는 編·註者の 능력문제와 아울러 이 책이 초학자 특히 아동들의 교재용으로 편찬되었다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熊節과 熊剛大의 생몰연대로 볼 때, 이 책은 적어도 13세기 前半에 편찬되었으며, 편찬된지 얼마 지나지않아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의 宋刻本이 전하기 때문이다.<sup>26)</sup> 결국 이 책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理學家들의 문집을 망라해 편집했다는 점, 그리고 ‘性理’라는 용어를 비교적 빨리 서명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성리서의 先驅的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sup>27)</sup>

25) 『四庫全書總目』 권92, 「子部-儒家類」의 「性理群書句解」

26) 『中國古籍善本書目』(上海古籍出版社, 1994), 「子部上」

27) 『中國儒學百科全書』(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7), 「熊節」

### 3. 奎章閣 所藏本(『性理群書句解』 前·後集)

四庫全書에 수록된 『성리군서구해』는 前集이나 後集 구분없이 그냥 『성리군서구해』로 되어있고, 권수도 23권이다. 그런데 규장각에 소장된 『성리군서구해』를 보면 서명이 『新編(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로 되어 있으며 前集과 後集이 나뉘어 있고, 권수도 모두 합치면 23권이 훨씬 넘는다. 따라서 이 책들은 四庫全書本 『성리군서구해』와는 다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에는 현재 10종의 『성리군서구해』가 소장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모두 零本이라서 완질본의 모습을 알 수 없다. 이들의 도서번호를 열거하면 ① <奎中 1829의1>, ② <古貴 181.134-C346s>, ③ <想白古貴 181.134-C346s>, ④ <一蓑古貴 181.1-Un3s>, ⑤ <奎中 1829의2>, ⑥ <가람古貴 181.1-Si67>, ⑦ <想白貴 181.134-Un3s>, ⑧ <가람古貴 181.1-Un3s>, ⑨ <古貴 181.134-Un3s>, ⑩ <一蓑古貴 181.1-So58e> 등이다.<sup>28)</sup> 이들 자료를 소장 경위별로 구분하면 원 규장각 소장본 2종, 일반고도서본 2종, 가람문고본 2종, 일사문고본 2종, 상백문고본 2종으로 매우 다양하다. 즉 조선시대 규장각에서 가지고 있던 도서가 2종, 일제시대 이후 규장각에 입수된 도서가 2종, 해방이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규장각에 기증한 도서가 6종으로, 이는 이 책이 상당히 널리 보급되어 있었던 상황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규장각 이외에도 국내 주요 도서관의 소장상황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5종,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藏書閣에 3종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 1종을 제외하면 이 역시 모두 零本이다.<sup>29)</sup> 그 외에도 현재까지 입수된 목록 등에 의해 국외 소장상황을 보면 중국 북경도서관에 3종, 상해도서관에 1종, 古宮博物院 圖書館에 1종, 浙江 天一閣文物保管所에 1종 등 6종이 있으며,<sup>30)</sup> 일본에는 內閣文庫에 2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朝鮮刊本이라고 한다.<sup>31)</sup>

규장각에 소장된 판본을 먼저 살펴보자. 권두서명을 보면 ②③④⑤⑦은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①⑥⑧⑨⑩은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로 되어 있으며, 특히 ⑩의 경우 표지서명은 『음점성리군서구해』로 되어 있다. 四庫全書 수록본은 단지 『성리군서구해』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와는 다른 서명이 붙어있는 것이다. 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내용을 검토해보자.

28) 현재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에는 ①②③④⑤⑥⑧⑨⑩ 등 9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에 ①⑤⑦ 등 3종이 실려있다. 그런데 ①⑤의 2종은 중복되어 실려있고, 『규장각도서중국본종합목록』에만 단독으로 실려있는 것은 ⑦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 10종이다.

29) 『古書目錄』(保景文化社, 1987)

30) 『北京圖書館古籍善本書目』(北京圖書館, 1987), 「子部」  
『中國古籍善本書目』(上海古籍出版社, 1994), 「子部上」

31) 岡田武彥, 앞 글.

①은 현재 5책 남아있는데, 제1책은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 권7~8까지, 제2책은 前集 권9~16까지, 제3책은 前集 권18~23까지 수록하고 있다. 제4책은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권9~13까지, 제5책은 後集 권15~18까지 수록하고 있다. 서명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제4~5책은 제1~3책과는 달리 앞부분이 新刊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32)</sup> 그런데 이들 5책은 책마다 활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는 冊數에 따른 卷數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제2책과 제3책 사이에 前集 권17이 빠져 있으며, 제4책과 제5책 사이에도 後集 권14가 없다. 이는 원래 같은 종류의 卷帙이 아니었던 것을 후대에 하나로 묶어 동일한 도서번호를 부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책의 前集 부분은 四庫全書本の 『성리군서구해』와 동일하다. 그런데 제4책의 경우 『근사록』 권9~14까지 수록하고 제5책의 경우는 『近思續錄』 권2~7까지 수록하고 있다. 後集에는 『근사록』이나 『근사속록』 등 四庫全書本 『성리군서구해』에는 없는 내용이 수록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四庫全書에 수록된 『성리군서구해』와는 달리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란 제목이 붙은 것은 이렇게 後集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後集에는 어떤 책들이 수록되었으며 누가 편찬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른 판본을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②의 경우 1책으로,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권22~23까지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近思別錄』 권1~14에 해당한다. 이 판본은 비록 1책만 남아 있지만, 後集 『근사별록』의 모든 卷數를 수록하고 있어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 또 맨 앞에는 “이 책은 覺軒이 南軒과 東萊 두 선생의 격언을 편집하여 別錄으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근사별록』은 覺軒 蔡模가 편집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甲寅字로 인쇄되었는데 보존상태가 좋고 인쇄가 선명하며, 말미에는 世宗代에 조선에서 간행했음을 알려주는 발문이 붙어있다. 즉, 1403년(태종3)에 지은 權近의 발문에서는 그 해 태종의 명령으로 癸未字가 주조된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1422년(세종4)에 지은 卞季良의 발문에서는 세종의 명령으로 庚子字가 주조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에 1439년(세종21)에 金鑣이 지은 발문에서는 세종16년에 甲寅字가 주조된 사실을 말하고, 맨 끝에 “正統4년 4月日 印出”이라고 하여, 이 책이 1439년에 甲寅字로 간행된 사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①② 판본의 내용으로 볼 때 後集은 『근사록』 『근사속록』 『근사별록』으로 이루어졌고, 熊節이나 熊剛大 이외의 인물이 後集의 편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2책이 남아 있는데, 표지서명은 『성리군서』이지만 卷頭書名은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로 되어있다. 제1책은 後集 권14~18까지, 제2책은 後集 권19~23까지 수록하고 있다. 前者는 『근사속록』 권1~7까지, 後者는 『근사속록』 권8~14까지와 『근사별록』 권1~14까지

32) 이하 별도의 표시없이 ‘書名’이라 함은 표지의 書名이 아니라 卷頭의 書名을 말함

수록하고 있어, 이 판본은 『근사속록』과 『근사별록』의 전체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책이다. 특히 『근사속록』을 처음부터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編者나 註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1책의 맨 앞부분을 보면 “지금 覺軒선생이 朱子의 말을 (근사록의) 분류에 따라 편집하여 近思續集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어서 “考亭門人 蔡模 集編, 建安後學 熊剛大 集解”라고 하여, 『근사속록』을 蔡模가 편집하고 熊剛大가 집해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①②③으로 볼 때 後集은 『근사록』 『근사속록』 『근사별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사속록』은 蔡模가 편집하고 熊剛大가 집해했으며, 『근사별록』은 蔡模가 편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 역시 갑인자로 인쇄되었으며, 끝에는 ②와 동일한 발문이 붙어있는데, 보존상태로 보아 ②보다 오래된 판본이 아닌가 추측된다. ①②처럼 갑인자로 인쇄되었고 正統4년(1439)에 간행했다는 刊記가 있다고 해서 이를 당시에 간행된 판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책이 세종대에 갑인자로 간행된 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고 하겠다.

④는 1책으로,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권19~21(근사속록 권8~14)을 수록하고 있다. 표지는 ‘성리군서’로 되어 있으며, 역시 갑인자로 인쇄되었고, 『근사속록』의 후반부를 담고있는 책이다.

⑤는 1책으로,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권5~8(근사록 권5~8)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 역시 갑인자로 인쇄되었는데, ①과 함께 ‘中國本’으로 분류되어 ①은 <奎中 1829의 1>, ⑤는 <奎中 1829의 2>란 연속된 도서번호가 붙어 있지만, 이 책들은 중국본이 아니라 조선에서 간행된 朝鮮 刊本이며, 두 판본 사이에는 동일한 도서번호로 분류될 만한 공통점이나 연속성은 없다.

⑥은 1책으로,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 권1·4·5를 수록하고 있는데, 각 권 모두 일부만 있고 중간에 落張이 많다. 특히 권1의 앞부분과 권5의 뒷부분은 缺落이 심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 아마도 몇 책의 낙질본을 수습해 한 책으로 묶어 다시 裝幀한 책으로 보인다. 규장각 소장본 중 유일하게 前集의 제1권, 즉 『성리군서구해』의 시작 부분을 담고 있는 책이지만, 1권의 맨 앞부분도 떨어져 나가고 중간부터 수록되어 있다.

⑦은 1책으로,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권14~23까지 수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卷數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하다. 後集 권14~23이라면 『근사속록』과 『근사별록』 전체를 수록하고 있는 셈이지만, 페이지의 일부가 찢겨나가고 나머지 조각만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 내용 파악이 어렵다. ⑥과 마찬가지로 책의 앞과 뒷부분의 결락이 특히 심한 편이며, 낙질본 몇 책을 수습해 한 책으로 裝幀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규장각도서 중국본종합목록』에 들어있는데, 판형이나 인쇄형태로 볼 때 목판으로 간행된 元版本이나 혹은 그를 저본으로 한 覆刻本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판본은 조선에서 『성리군서구해』를 본격적으로 간행하기 이전 단계에 중국에서 수입되어 유했던 중국본 『성리군서구해』의 원

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겠다.

⑧은 1책으로,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 권13~17까지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 책의 맨 뒷장에 墨書로 기입된 藏書記가 있어 주목된다. “經亂之後 此唯家寶 而失其三卷 歎如之何”라는 표현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의 소장본일 가능성이 크지만, 누군가가 써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책이 확실하게 16세기 간행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⑨는 1책으로,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 권1~3과 권11~12의 일부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훼손이 심하여 정확하게 卷次를 확인하기 어렵다. 落張이 많은데 특히 책의 처음과 끝부분이 심한 편이며, 역시 낙질본 여러 책을 수습하여 한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⑩은 1책으로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 권9~23권까지 수록하고 있으나, 역시 훼손이 심하여 낙질본 여러 책을 한 책으로 묶은 것이다. 落張된 부분이 많으며 심지어는 版次의 순서가 앞뒤로 뒤바뀐 경우도 있다. 판형이나 字體로 보면 後集 일부를 수록한 ⑦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역시 元版本이나 그 覆刻本으로 생각되는 책이지만, 권두서명의 앞부분이 ⑦과는 달리 ‘新編’으로 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이상에서 규장각에 소장된 10종의 『성리군서구해』를 살펴보았는데, 조금 장황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규장각 소장자료에 대한 정리를 겸한다는 의미에서 일일이 이를 열거하여 보았다. 이 책들의 권두서명은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혹은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로 되어 있으며, 前集 後集으로 구분되고 있다. 前集의 내용은 四庫全書本 『성리군서구해』와 같지만 後集은 四庫全書本에는 없는 것으로, 『근사록』 『근사속록』 『근사별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사속록』은 채모가 朱熹의 어록을 『근사록』의 예에 따라 편집한 것이며, 『근사별록』 역시 채모가 朱熹의 交友인 張栻과 呂祖謙의 어록을 편집한 책이다.

그렇다면 宋儒의 遺文集인 원래의 『성리군서구해』에다 그들의 語錄集인 『근사록』 『근사속록』 『근사별록』을 첨부하면서 ‘새로 편집’ 혹은 ‘새로 간행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書名에 ‘新編’ 혹은 ‘新刊’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원래의 『성리군서구해』를 前集으로 하고 나중에 덧붙인 『근사록』 등은 後集으로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책의 편찬경위나 書名에 대한 연원을 밝혀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책의 체제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리대전』은 宋儒의 遺文集인 『성리군서구해』와 語錄集인 『근사록』의 통합과정을 통해 편찬된 책이다. 그러나 『성리군서구해』 前·後集의 편찬으로 이 책 자체에서 이미 그러한 통합이 모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宋儒의 遺文을 수록한 『성리군서구해』가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이와 짝하여 어록집인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을 덧붙였다는 것은, 『성리군서구해』 내부적으로 이미 문집과 어록의 결합을 추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서명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점은 ‘新編’ ‘新刊’의 混用 여부이다. 얼핏보면 ‘新編’ 혹은 ‘新刊’의 混用은 서명 상의 錯簡으로 보이지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나름대로 원칙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권두서명이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로 되어 있는 것은 ①⑥⑧⑨⑩이고,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는 ②③④⑤⑦인데, 묘하게도 前者는 모두 前集, 後者는 모두 後集을 수록한 책이다. 그렇다면 前集은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로, 後集은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로 구분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①의 경우로, 전체 5책 가운데 제1~3책은 前集, 제4~5책은 後集인데, 前集에는 ‘新編’으로, 後集에는 ‘新刊’으로 권두서명이 붙어있다. 이러한 서명상의 구분은 뒤에 살펴볼 장서각 소장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검토한 여러 판본으로 볼 때 『성리군서구해』를 간행하면서 대개 前集에는 ‘新編’으로, 後集에는 ‘新刊’으로 서명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新編’과 ‘新刊’을 구분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도 前集과 後集의 간행 시점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고, 글자 그대로 前集의 경우 後集을 덧붙여 전체를 새롭게 편집한다는 의미에서 ‘新編’으로, 後集의 경우 前集과 함께 새로 간행한다는 의미에서 ‘新刊’으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는 조선에서 간행할 때 새로 붙인 서명은 아니다. 규장각에 所藏된 元版本에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즉 ⑦은 後集으로 ‘新刊’, ⑩은 前集으로 ‘新編’으로 서명이 붙어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판본 역시 마찬가지로, 서명상의 이 원칙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sup>33)</sup> 그렇다면 원래 중국에서 간행할 때부터 이러한 前·後集의 서명상의 구분이 있어왔고,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元版本을 대상으로 다시 간행하면서 이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 상당히 많은 종수의 판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世宗代의 刊記가 남아 있다는 것은 朝鮮 前期부터 이 책이 간행 보급되었던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 元版本의 원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世宗代 이전부터 중국에서 이 책을 수입하여 元版本의 형태로, 혹은 그를 覆刻 刊行하여 학자들이 읽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 안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규장각 소장본을 통해 『근사속록』이나 『근사별록』의 編者나 註者는 밝혀졌지만, 규장각 소장본 중에 후집의 앞부분을 수록한 판본이 없기 때문에 『근사속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의 『근사속록』이라면 당시 통용되던 平巖本 『近思錄』, 즉 朱熹가 편집한 『근사속록』에 葉采가 註解를 단 『근사속집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성리군서구해』 後集에 수록된 『근사속록』은 그와는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이

33) 『北京圖書館古籍善本書目』(北京圖書館, 1987)의 「子部」 및 『中國古籍善本書目』(上海古籍出版社, 1994)의 「子部上」에도 모두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前集,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後集으로 표기되어 있다.



『근사록』은 누가 편찬한 것일까? 아울러 이 책의 서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판본을 검토해 보자.

#### 4. 藏書閣 所藏本(『性理群書句解』 前·後集)

##### 1) 『성리군서구해』 前集

장서각에 소장된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가운데는 완질본이 1종 있다.<sup>34)</sup> 이 판본은 표지서명이 『성리군서』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 23권 5책,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23권 5책 등 모두 46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도 앞에서 살펴본 규장각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前集은 ‘신편’으로, 後集은 ‘신간’으로 서명이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前集의 경우 四庫全書本 『성리군서구해』의 23권 6책과는 책수에서 차이가 있지만 卷次나 내용은 거의 같다. 後集의 경우 규장각 소장본만으로는 정확하게 卷次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後集 제1책은 권1~3(『근사록』권1~3)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2책은 권4~7(『근사록』권4~7), 제3책은 권8~13(『근사록』권8~14)을 수록하고 있다. 제4책은 권14~18(『근사속록』권1~7)을 수록하고 있으며, 제5책은 권19~23까지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근사속록』 권8~14까지와 『근사별록』 권1~14에 해당한다. 책수로 따지면 1~3책은 『근사록』이며, 4책에서 5책 중간까지가 『근사속록』, 5책의 나머지가 『근사별록』으로, 『근사록』이 가장 많고 『근사별록』이 가장 적은 분량이다.

前集과 後集 모두 맨 앞에 「目錄」이 붙어 있다. 마지막 책의 끝부분, 즉 『근사별록』 이후에는 규장각본 ②③과 동일한 내용의 발문이 붙어있지만, 이 책은 17세기 전반에 간행된 甲寅字覆刻版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5)</sup> 각 책의 첫면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라는 藏書印이 찍혀있고, 끝장에는 “義城權氏家藏”이라는 墨書로 기입된 藏書記가 있어 원 소장처를 알려주고 있다.

먼저 前集을 살펴보자.

前集의 경우 장서각 소장본은 규장각 소장본들과 체제나 내용상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四庫全書本과 비교하면 몇가지 차이점이 드러난다. 우선 四庫全書本의 경우 제1권 맨 앞에 7현의 傳道支派가 나오고 遺像없이 遺像贊이 실려 있는데, 이 책에는 傳道支派 앞에 遺像이 실려 있다. 규장각 소장본 ⑥의 경우 맨 앞 8면 정도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34) 도서번호는 <귀 K3-52>이며, 마이크로필름 번호는 433와 434임.

35)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子部-儒家類」의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K3-52)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字數나 行數 등이 모두 장서각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도 遺像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규장각본이나 장서각본 모두 註解의 표기방식에서 四庫全書本과 다른 차이점이 드러난다. 즉 본문 속 어려운 漢字의 품이나 訓을 註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四庫全書本의 경우 다른 註文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규장각본이나 장서각본에서는 註 속에서 풀이 대상인 漢字에 검은 테(墨蓋子)를 두르고 글자는 陰刻(白文)하여 이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奇**音幾”, “**惡**去聲”, “**著**與着同” 이라고 하여 특정 漢字의 음이나 훈을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sup>36)</sup> 이것이 바로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의 ‘**音點**’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音點이란 용어를 포함하는 서명은 다른 데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규장각 소장 도서 중 이와 비슷한 서명을 가진 책을 찾아보면, ‘點校附音’을 서명으로 하는 책이 있는데,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가 바로 그것이다.<sup>37)</sup> 이는 江贊가 편찬한 『少微通鑑節要』에 史炤가 音釋, 王逢이 輯義, 劉刻이 增校한 책이다. 江贊의 『少微通鑑節要』가 세상에 통용된 지 오래 되었으나 訓釋이 소략하고 議論이 간소하여 독자들이 불만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王逢이 善本을 釋義하여 訓釋을 詳備하고 句讀를 명백케 하였다고 한다.<sup>38)</sup> 이 책 역시 아동 교육용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文意를 쉽고 명백하게 전달하기 위해 교정은 물론, 音을 위한 音釋과 訓을 위한 輯義를 더했던 것이다. 실제로 책 내용을 보면, 본문 상단 書眉에 欄外註가 있으며, 본문 속에서는 다시 雙行細註로 특정 한자에 대한 音과 訓을 풀이해주고 있다. 이를 ‘釋義’라 하여 墨蓋子에 白文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렇게 校訂을 보고 音註를 가했다는 의미에서 서명에 ‘點校附音’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의 경우 ‘附音點校’를 줄여서 ‘音點’으로 표기했다면 이 역시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의 釋義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추측된다. 즉, 성리학 입문서로 초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정을 보아 定本을 만들고, 어려운 한자에 대한 음이나 훈을 풀이하는 音註를 가했다는 표시로서 서명에 ‘音點’이란 용어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前集에 새롭게 後集을 추가하여 新編할 때 동시에 點校附音하면서 서명에 ‘音點’이란 용어를 삽입하여, 결국 四庫全書에는 『성리군서구해』로만 되어있던 서명이 여기서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로 바뀌게 된 것이다.

## 2) 後集의 『近思錄』

後集은 『근사록』 『근사속록』 『근사별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四庫全書 수록본에는 들어있

36)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전집 권1 「原象贊」, 권3 「西銘」, 권4 「首尾吟」 참조

37) 도서번호는 <奎中 908>로, 35권 15책이다.

38)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卷首, 「識」(劉應康, 1428)

지 않은 부분이다. 前集과 마찬가지로 규장각본과 장서각 소장본은 내용이나 체제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후 설명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규장각본에 없는 내용은 장서각본을 이용하였다.

後集의 卷首 맨 앞에는 「近思錄編集諸儒註解」라고 하여 『근사록』 편집시 참고했던 宋儒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朱熹·張栻·呂祖謙·黃榦·熊節·蔡淵·李方子·葉采 등 8인이다. 그 다음에는 目錄이 실려있으며, 目錄 끝에는 撰者를 알 수 없는 識文이 붙어있다. 目錄 처음의 『근사록』 부분에서는 「晦庵先生 朱文公 集編, 東萊先生 呂公成 同編」이라고 하여 『근사록』의 編者가 朱熹와 呂祖謙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考亭後學 熊剛大 集解”라고 하여 집해자가 熊剛大임을 밝히고 있는데, 『근사속록』에서는 “建安後學 熊剛大 集解”라고 했다가, 여기서의 畵이 ‘考亭後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朱熹가 편찬한 『근사록』을 의식한 나머지 朱熹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아닌가 생각된다. 目錄 끝의 識文은 이 책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序跋文이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근사록』은 朱熹와 여조점이 편찬했으며,<sup>39)</sup> 『근사속록』과 『근사별록』은 채모가 편집했다는 정도로 간단히 편집자를 소개하는 수준이다. 이 책의 편찬 혹은 간행경위, 즉 新編이나 新刊 등의 내력을 알려주는 정보는 전혀 없다. 그러나 目錄 부분에서 단 세 줄로 처리되었지만, 『근사록』의 경우 주희와 여조점이 편집한 내용에 熊剛大가 集해를 더했다는 지적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책에 수록된 『근사록』을 熊剛大가 集해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熊剛大는 前集의 전체와 『근사속록』은 물론 『근사록』까지 集해했으며, 熊剛大의 『근사록』이 수록된 『성리군서구해』가 조선에서 일찍이 간행 보급되었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통용되던 葉采의 『근사록집해』와는 다른 近思錄集解本이 朝鮮 前期에도 읽혀졌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근사록』의 目錄 부분에 수록된 인용인물을 볼 때 현재의 葉采集解本에는 朱熹·張栻·呂祖謙·黃榦·蔡淵·李方子 등 6명만 나타나 있지만,<sup>40)</sup> 이 책에는 이외에도 熊節과 葉采 등 2명이 더 수록되어 있다.<sup>41)</sup> 이는 『성리군서구해』 後集의 『근사록』을 集해한 사람은 葉采나 熊節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며, 특히 熊節이 인용된 것으로 보아 이 책의 集해자는 熊剛大임이 더 확실해진다고 하겠다. 熊節과 熊剛大의 관계는 이미 『성리군서구해』 前集에서 편집자와 集해자로 편찬에 참여했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결국 葉采集解本에 비해 熊節과 葉采의 註解를 더 보충했다는 의미로, 이 책은 분명히 葉采集解本과는 다른 註解本인 것이다.<sup>42)</sup> 이제 『근사록』의 내용을 통해 葉采集解本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기로 하자.<sup>43)</sup>

39) 이는 葉采의 『近思錄集解』 앞부분에 수록된 朱熹의 識文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40) 葉采集解本 『近思錄』 卷首, 「集解目錄」

41)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後集 卷首, 「近思錄編集諸儒註解」

42) 이하 葉采가 集해한 『近思錄』을 葉采集解本이라 한다.

43) 葉采集解本에 대한 내용은 保景文化社(1990) 刊 『心經·近思錄』 影印本을 이용하였다.

우선 한 권에 실린 條目數를 비교해보면 『성리군서구해』 後集에 실린 『근사록』보다 葉采集解本이 많다. 몇 권 예를 들어보면, 권1의 경우 葉采集解本이 51조목인데 비해 『성리군서구해』 後集에 실린 『근사록』은 43조목이며, 권2의 경우 葉采集解本은 111조목인데 비해 성리군서본은 80조목,<sup>44)</sup> 권9의 경우 葉采集解本은 27조목인데 비해 성리군서본은 18조목이다. 그런데 성리군서본에 들어있는 조목은 대개 葉采集解本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결국 葉采集解本 가운데 일부가 성리군서본에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본문을 비교해보자. 일단 그 조목이 수록되었으면 성리군서본의 내용은 葉采集解本과 대체로 일치한다. 단, 아주 드물게 본문도 葉采集解本과 비교할 때 그 일부분만 수록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권2의 제59조 “莫說道”로 시작되는 부분은 끝부분만 수록하고 있으며, 권2의 제89조는 장횡거의 西銘과 東銘부분인데 葉采集解本에서는 銘文과 해설부분이 모두 본문으로 실려있는데 비해 성리군서본에서는 銘文은 없고 해설만 본문으로 수록하고 있다.<sup>45)</sup> 또 葉采集解本에서는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글이 성리군서본에서는 한 조목 속에 연이어 수록된 경우가 있다. 즉, 성리군서본은 본문 단락이 긴데 비해, 葉采集解本에서는 이를 다시 나누어 별도의 여러 단락으로 구분했는데, 특히 권2에 이런 경우가 많다.<sup>46)</sup>

註解의 형식과 내용을 보자. 일단 그 조목이 수록된 경우, 註解의 분량은 성리군서본이 더 많다. 葉采集解本에 있는 註는 대개 성리군서본에 있으나, 성리군서본에 있는 註 가운데 葉采集解本에는 없는 註가 더러 있다. 또 성리군서본의 註는 구절 단위로 붙어 있으나, 葉采集解本은 문장 단위로 구분하여 註를 대개 문장의 끝에 모아놓았다. 葉采集解本과 비교할 때 성리군서본 『근사록』은 분명히 逐句解釋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때문에 이 책에 ‘句解’라는 명칭이 붙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前集 부분에서 지적한 바 있다. 陳榮捷도 熊剛大의 『근사록집해』를 논하면서 이 책의 특징을 ‘逐句淺解 爲初學之用’으로 거론하고 있다.<sup>47)</sup>

註解의 일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본문 구절의 상세한 내용 풀이에 두어졌지만, 이 외에도 典據나 인용의 표시로 사용되고 있다. 즉 해당 본문은 어디서 따왔는지, 혹은 해당 註解는 누구의 학설인지 하는 문제를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 註解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註解의 표기 방식에 관해 살펴보자. 본문의 전거나 註解의 인용자를 摘示

44) 이하 제4장 2절에서는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後集에 수록된 『近思錄』을 편의상 ‘性理群書本’이라 한다.

45) 조목 수는 葉采集解本 『근사록』과 Wing-Tsit Chan, 1967, 『Reflections on Things at Hand』 (Columbia University)의 구분에 따른다.

46) 葉采集解本의 권2의 제36·37·38조목이 성리군서본에서는 한 문장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葉采集解本의 제66·67조목이 한 조목으로, 제71·72조목이 한 조목으로, 제105·106조목이 한 조목으로 처리되고 있다.

47) 陳榮捷, 앞 책, 164쪽 참조

할 때, 葉采集解本에서는 다른 註文과 동일하게 그냥 “文集” 혹은 “朱子曰” “伊川言” 등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성리군서본에서는 墨蓋子로 테두리를 두르고 白文으로 표시하여 쉽게 눈에 띄도록 처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의 경우 특정 한자에 대한 풀과 訓 풀이에 이 墨蓋子를 사용하였는데 반해,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가 보이지 않으며 대개는 註解 인용자의 성명 표기에 사용하고 있다. 前集의 경우 대부분 文集에서 발췌한 것으로 제목이 붙어있는 글이기 때문에 典據 표시는 필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는 宋儒의 문장을 수록한 前集과 어록을 수록한 後集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葉采集解本에서는 註 속에 ‘愚謂’ 라고 하여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으나,<sup>48)</sup> 성리군서본에서는 집해자 자신의 견해를 明記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고 있다.

註解의 내용을 보면, 葉采集解本에서는 “本註云”으로 표시된 부분이 성리군서본에서도 墨蓋子 속에서 “本注”로 표시되고 있다. 여기서의 본주란 朱熹의 舊註로 생각되는데, 葉采는 『근사록집해』를 편찬할 때 朱熹의 구주를 근본으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거니와,<sup>49)</sup> 성리군서본의 『근사록』 집해자, 즉 熊剛大 역시 朱熹의 註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葉采集解本이나 성리군서본은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목록부분의 비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리군서본에서는 葉采集解本에 비해 葉采와 熊節 두 사람의 註解를 추가로 삽입하였다. 葉采는 葉采集解本을 편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熊節의 경우 葉采集解本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성리군서본에는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양쪽의 註解 내용을 검토해보면, 성리군서본에는 “熊氏曰” 혹은 “熊鰲峯曰”로 시작되는 熊節의 註解 부분이 葉采集解本에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sup>50)</sup>

葉采는 朱熹의 문인인 蔡淵과 陳淳의 제자이다.<sup>51)</sup> 熊剛大 역시 朱熹의 문인인 황간과 채연의 제자이니, 결국 이들은 모두 朱熹의 再傳弟子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큰 스승인 朱熹의 학설을 중심으로 집해작업을 진행해나간 것은 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또 熊剛大의 스승이기도 한 채연은 동시에 葉采의 스승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일한 스승을 모신 제자의 학설이 크게 다를 리 없으며, 실제로 葉采集解本이나 성리군서본의 『근사록』 모두에 인용자로서 채연을 공통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책은 동일한 성리학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다만 본문의 분량이나 註解의 수록여부, 註解의 처리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갖는다.

48) 葉采 스스로 「近思錄集解序」에서 “有闕略者乃出臆說”이라고 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음을 밝히고 있다.

49) 葉采集解本 『近思錄』 卷首, 「近思錄集解序」(葉采, 1248)

50) 권1의 제7조목, 권2의 제8조목·14조목, 권3의 제17조목, 권4의 제35조목 등이 그것이다.

51) 『宋元學案』 권65, 「木鐘學案」의 「西山家學」 중 「秘監葉平巖先生采」

이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葉采集解本이 조목 수가 많고 註解는 간략한 반면, 성리군서본은 조목 수가 적은 대신 註解가 많다. 또 葉采集解本이 조목 말미에 註解를 몰아서 단 반면, 성리군서본은 본문 중간의 해당 부분에 곧바로 註解를 달았다. 葉采集解本이 내용상 더 많은 항목을 수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성리군서본은 적은 항목이지만 상세한 註解와 墨蓋子의 사용 등을 통해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註解의 표기방식이나 분량, 위치 등의 문제로 볼 때는 일단 성리군서본이 葉采集解本보다 상세하고 친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해당 句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는 편리하나, 한편으로는 본문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자주 끊기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요지를 파악하는데는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장점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본문을 보면 葉采集解本에 비해 성리군서본의 경우 단락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아직 체제가 완비되지 못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葉采集解本이 수십년간의 교정과 집해 끝에 나온 결과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차이라고 하겠다.<sup>52)</sup>

『근사록』에 대한 주석서는 중국 조선 일본 모두 합쳐 50여종이 넘을 만큼 후대에 많은 주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葉采의 『근사록집해』는 현전하는 주석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며, 조선이나 일본에서 많이 읽혀진 책으로 알려져 왔다.<sup>53)</sup> 성리군서본 『근사록』은 葉采와 동시대 인물인 熊剛大에 의해 집해되었으며, 결국 葉采集解本 못지않게 오래 전에 편찬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3) 後集의 『近思續錄』과 『近思別錄』

먼저 『근사속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근사록』과 마찬가지로 1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권14~21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이나 編集者·集解者에 대해서는 『성리군서구해』 後集의 다른 책보다 비교적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즉, 後集의 목차 가운데 “14권부터 21권까지 8권은 覺軒 蔡先生이 朱文公의 격언을 편집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sup>54)</sup> 『근사속록』은 채모가 주희의 어록을 採錄한 책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그 체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周(敦頤)·張(載)·二程의 格言은 文公이 이미 분류하여 편집하였다. 지금 각현선생이 다시 文公의 격언을 모아서 그 분류에 따라 『近思續集』을 편집하였으니, 性理學에 관한 책이

52) 葉采集解本 『近思錄』 卷首, 「進近思錄表」(葉采, 1252)

53) 陳榮捷, 앞 책, 163~173쪽 참조

54)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卷首, 「目錄」

여기에 다 들어있다.<sup>55)</sup>

앞부분에서는 朱熹가 『근사록』을 편집한 사실을 말하고, 뒷부분에서는 채모가 朱熹의 어록을 『근사록』의 예에 따라 분류하여 『근사속록』을 편집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은 1주제당 1권씩 모두 14개의 주제를 14권에 수록하고 있어 『근사록』과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주제 겹 목차도 『근사록』과 동일하다. 제1권부터 차례로 열거하면 道·爲學之要·致知格物·存養·克己·齊家·出處義利·治體·治法·政事·教學·警戒·辨異端·人品 등이다. 『근사록』의 道體가 道로, 爲學大要가 爲學之要로, 致知가 致知格物로, 家道가 齊家로, 觀聖賢이 人品으로 되어 있는 등 용어상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이어서 “考亭門人 蔡模 集編, 建安後學 熊剛大 集解”라고 하여 蔡模가 편집한 이 책에 熊剛大가 집해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蔡模(1188~1246)는 西山 蔡元定の 손자이자 九峰 蔡沈의 큰 아들이며, 節齋 蔡淵의 조카로, 조부와 부친을 비롯한 伯仲父 모두가 朱熹의 문인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熊剛大가 문인으로 자처했던 바로 그 스승이기도 하다. 建陽人이고 字는 仲覺이며, 학자들은 覺軒선생이라 불렀다고 한다. 淳祐4년(1244) 迪功郎에 보임되고 本府教授에 임명되었다. 저서로는 『續近思錄』 『易傳集解』 『大學衍說』 『論孟集疏』 『河洛探蹟』 등이 있다고 한다.<sup>56)</sup> 여기서의 『속근사록』은 『근사속록』을 말하는 것이며, 채모는 이 책을 寶慶3년(1227, 남송 理宗3)에 편찬했다고 한다.<sup>57)</sup> 채모는 『성리군서구해』 前·後集의 편찬자 가운데 생몰연대가 밝혀져 있는 유일한 인물이며, 『근사속록』 역시 『성리군서구해』 前·後集을 통틀어 유일하게 편찬연대가 밝혀진 책인 셈이다.

『근사속록』의 내용을 검토해 보자. 14권 전체에 수록된 조목 수는 약 380여 항목이다. 그 중 권1~4에 이르는 道·爲學之要·致知格物·存養 부분이 분량도 가장 많으며 조목 수도 다른 권에 비해 많다.<sup>58)</sup> 이 4개의 주제는 朱熹가 「求端」과 「用力」의 범주로 묶어 『근사록』의 맨 앞에 놓아 강조한 부분이며, 朱熹의 遺意를 충실히 계승하고자 하는 채모 역시 이 부분을 비중있게 다룬 것은 당연하다.

본문은 채모가 朱熹의 학설을 朱熹가 남긴 기록이나 어록에서 채록하였다. 註에 제시된 전거를 살펴보면, 朱熹의 文集과 語錄을 비롯하여 『孟子集註』 『論語集註』 『大學章句』 『中庸

55)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권14, 卷頭

56) 이상 蔡模에 대한 약력은 『中國人名大辭典』 및 『宋元學案』 권67 「九峯學案」의 「教授蔡覺軒先生模」條를 참조하였다.

57) 『福建藝文志』 권41, 「子部3-宋」에 수록된 『續近思錄』에 의하면 寶慶 丁亥(1227년)에 채모가 편찬한 것으로 되어있다.

58) 권14의 人品을 제외한 나머지 권의 조목 수는 대개 10~20여 항목이나, 앞부분 권1~4의 조목 수는 각 권당 40~50여 항목이다.

章句』 등의 四書集註와 『大學或問』 『中庸或問』 『論語或問』 등의 四書或問, 『書傳』 『詩傳』 『易本義』 등의 三傳, 『易學啓蒙』 및 「太極圖」와 「西銘解」, 기타 經說과 手帖 등이다.

그 다음 熊剛大가 모아놓은 註解부분을 살펴보자.

註解의 대부분은 본문 구절의 상세한 내용 풀이에 할애되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본문을 어디서 따왔는지 알려주는 典據 표기에도 이용되고 있다. 반면 해당 註解가 누구의 학설인지 그 인용자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後集의 『근사록』과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註解의 표기방식에 있어서도 後集의 『근사록』처럼 典據구분이나 인용자 표시를 위한 墨蓋子是 보이지 않으며, 대신 한자의 음훈 표기를 위해 墨蓋子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근사속록』에서는 거의 墨蓋子를 쓰지 않고 있으며, 『성리군서구해』의 前集 전체, 또는 後集의 『근사록』에 표시된 墨蓋子와 비교할 때 그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註解의 위치는 이제까지 보아온 『성리군서구해』 前集, 또는 後集의 『근사록』과 동일하게 해당 구절 사이에 삽입하는 逐句解釋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句解’의 특징이 계속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註 속에 “愚案” 등의 용어로 집해자의 견해를 明記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後集의 『근사록』과 마찬가지로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蔡模는 『근사록』의 체제에 의거해서 朱熹의 학설을 편집하였으며, 熊剛大는 여기에 본문의 전거를 밝히거나 그 내용을 해설할 목적으로 註解를 가하였다. 熊剛大는 熊節이 편집한 『성리군서구해』 前集, 주희와 여조검이 편집한 『근사록』에 이어서 蔡模가 편집한 『근사속록』에도 집해를 하여, 결국 『성리군서구해』 前·後集 대부분에 집해를 달게 된 것이다.

『근사록』 이후 그 체제를 모방하여 많은 근사록류가 편찬되었는데, 이들은 대개 ‘近思續錄’ ‘續近思錄’ ‘廣近思錄’ ‘近思後錄’ ‘近思別錄’ 등의 서명을 붙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속근사록’과 ‘근사속록’으로, 이 둘이 혼용되면서 書名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책 역시 ‘근사속록’ 혹은 ‘근사속집’<sup>59)</sup> ‘속근사록’<sup>60)</sup> 등으로 불리는 바람에 혼동이 있었다. 진영칩은 朱熹의 講友인 劉淸之(1139~1189)가 편찬한 『속근사록』이 熊剛大의 『성리군서』에 수록되었다고 했는데,<sup>61)</sup> 『성리군서구해』에 수록된 것은 유청지의 『속근사록』이 아니라 바로 이 책, 즉 蔡模가 편집하고 熊剛大가 집해한 『근사속록』으로, 이는 아마도 『근사속록』과 『속근사록』을 혼동한데서 온 잘못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근사별록』에 대해 살펴보자.

59)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後集의 『근사속록』 권7에는 “近思續集”으로 제목이 붙어있다.

60) 『福建藝文志』 권41, 「子部3-宋」에서는 蔡模가 편집한 이 책을 「續近思錄」條에서 설명하고 있다.

61) 陳榮捷, 앞 책, 177쪽 참조



이 책 역시 『근사록』 『근사속록』과 마찬가지로 14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간음점성리군서구해』 後集 권22~23에 수록되어 있다. 전체가 1책도 못되는 분량으로 『성리군서구해』 後集에 수록된 3종의 근사록류 중 분량이 가장 적다. 『근사속록』과 마찬가지로 채모가 편집했는데, 後集의 목차 가운데 “(권22권) 이하는 覺軒 蔡先生이 南軒과 東萊 두 선생의 격언을 편집한 것이다”라고 하여, 『근사별록』은 채모가 張栻과 呂祖謙의 어록을 채록한 책임을 밝히고 있다.<sup>62)</sup> 또 채모가 이 책을 편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각현이 남현과 동래 두 선생의 격언을 모아 별록을 만들었는데, 이는 (그들이) 朱子와 동시대에 살면서 같은 道를 공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sup>63)</sup> 南軒 張栻과 東萊 呂祖謙은 朱熹가 평소 존중하고 함께 강학·토론한 交友이다. 이는 곧 스승인 朱熹의 교우도 결국 자신의 스승이며, 같은 학문의 길을 추구했다는 인식 아래 그들의 어록을 편집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채모가 이 책을 편집한 시기는 언제일까? 아무래도 『근사속록』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 같다. 스승 친구의 어록을 스승인 朱熹의 어록보다 먼저 편찬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스승인 朱熹의 어록 『근사속록』을 먼저 편집하고, 그 후에 朱熹의 교우인 장식·여조겸의 어록인 『근사별록』을 편집함이 순서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채모가 『근사별록』을 편찬한 시기는 『근사속록』 편집 이후인 1228년부터 채모의 沒年인 1246년 사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사별록』의 내용을 검토해 보자.

이 책은 분량도 적지만 전체 조목 수도 100여 항목에 불과해, 葉采集解本 『근사록』에서 가장 많은 조목을 수록한 권2의 111항목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근사록』이나 『근사속록』과 마찬가지로 1권에 한 주제씩 모두 14개의 주제를 14권에 수록하고 있다. 그 주제 검목차를 제1권부터 차례로 열거하면 道體·爲學大要·致知·存養·克己·家道·出處義利·治體·治法·政事·教學·警戒·辨異端·觀聖賢 등으로, 『근사록』과 완전히 동일하다. 오히려 『근사록』에서는 제목을 각 권의 시작부분 註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여기서는 각 권 아래 정식으로 제목을 표기하여 『근사록』의 분류를 완전히 定型化시킨 듯한 인상을 준다.

본문은 채모가 張栻과 呂祖謙의 학설을 채록하였는데, 수록 순서를 보면 각 권마다 항상 장식을 앞에 놓고 여조겸을 뒤에 놓았다. 註에서 밝힌 전거를 살펴보면, 장식과 여조겸의 문집을 중심으로 그 밖에 「孟子說」 「詩說」 「書說」 「詩記」 「易說」 「論說」 「學記」 「奏藁」 「奏策」 등이다. 이처럼 두 사람이 남긴 여러 기록에서 채록하였지만, 대부분은 두 사람의 문집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근사속록』에 비하여 현저하게 채록 범위가 좁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朱熹와 두 사람간 저술 분량의 큰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2)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後集 卷首, 「目錄」

63)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後集 권22, 卷頭

註解는 본문의 구절 내용 풀이나 해당 본문의 典據를 표기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며, 註解를 어디서 따온 것인지 알려주는 註解 자체의 전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墨蓋子 역시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 사용된 경우 주로 한자의 음훈 표기에 쓰이고 있다. 註解 표기상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근사속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後集의 『근사록』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註解의 위치는 문장의 끝부분에 몰아 처리하지 않고 해당 구절의 아래에 곧바로 삽입하는 逐句解釋的 면모를 역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성리군서구해』 前·後集을 통틀어 일관되게 유지된 형식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註 속에 “愚案” 등의 용어로 집해자의 견해를 明記하는 경우도 보이지 않는데, 이 점 역시 『성리군서구해』 後集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 책의 편집자는 채모로 밝혀져 있지만, 누가 註解를 모았는지 집해자에 대한 明文은 없다. 집해 방식이나 墨蓋子의 용도로 볼 때 『근사속록』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역시 熊剛大가 집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근사록』은 성리서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후대에 수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방한 수많은 근사록류가 편찬되었다. 先儒나 자신의 스승을 추존하고 그 학설을 좇아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宋儒의 어록이나 언행록을 발췌하여 편집한 『근사록』보다 좋은 방식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근사록』의 체제가 상당히 널리 애호되었고, 그 방식에 따라 朱熹를 비롯한 그 교우나 문인 등 宋儒, 薛瑄·胡居仁·王陽明 등 明儒, 또는 李滉 등 조선의 유학자 등에 이르기까지 역대 巨儒들의 어록을 편집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계속 시도되었다.<sup>64)</sup>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송대 이후 청대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近思錄後繼書’가 약 20여종에 달하며,<sup>65)</sup> 조선의 경우에도 李滉을 포함한 역대 儒賢에 대한 어록 편집물이 여러 종 발견된다.<sup>66)</sup> 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는 朱熹의 교우인 劉清之가 편찬한 『속근사록』, 朱熹의 문인인 李季札이 편찬한 『근사속록』이 알려져 있으나, 이 책들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現存하는 『근사록』의 後繼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것은 바로 채모의 『근사속록』과 『근사별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後集에 수록된 덕분에 지금 우리는 가장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근사록』의 후계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64) 이 책들은 대개 1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근사록』의 卷次까지 그대로 遵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5) 陳榮捷, 앞 책, 177~180쪽 참조

66) 陳榮捷의 앞 책에서는 李灝의 『李子粹語』, 李漢膺의 『續近思錄』, 宋秉璋의 『近思續錄』 등 3종을 들고 있는데, 규장각에는 이외에도 韓夢麟의 『續近思錄』, 任憲晦의 『五賢粹言』 등이 더 소장되어 있다. 한 몽인의 『續近思錄』은 朱熹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한응의 『續近思錄』은 朱熹·張栻·呂祖謙·李滉, 『李子粹語』는 李滉, 『近思續錄』과 『五賢粹言』은 趙光祖·李滉·李珣·金長生·宋時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성리군서구해』의 내용과 체제, 편찬자와 편찬경위를 살펴보았다. 이 책 전체의 서명은 『新編(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이며 前集과 後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줄여서 『성리군서』 혹은 『성리군서구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 四庫全書本에 수록된 『성리군서구해』와는 다른 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四庫全書本에 수록된 『성리군서구해』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前集이다. 처음에는 『성리군서구해』만 있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 없었으나, 내용을 추가하면서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後集을 만들고, 원래의 『성리군서구해』를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前集으로 이름 붙이면서 이러한 구분이 생긴 것이다.

이 책의 前集에는 원래의 『성리군서구해』를 수록하였고 後集에는 『근사록』, 『근사속록』, 『근사별록』을 합본하였다. 따라서 前集의 경우 四庫全書本 『성리군서구해』와 내용은 동일하다.

前集은 朱子門人인 熊節이 宋代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7賢의 글을 문체별로 분류하여 편집하고, 朱熹의 再傳弟子인 熊剛大가 集解한 책이다. 본문보다 많은 분량의 상세한 註解를 달아 놓았으며, 그 위치를 문장 끝이 아니라 구절마다 逐條의으로 해설하는 逐句解釋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본문 이해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이 책의 편찬 목적이 아동용 성리학 입문서에 있다는 집해자의 의도를 짐작케 해준다. 성리학 공부에 도움을 주는 문장을 여러 책에서 발췌 편집하였으며, 句解의 방식으로 상세한 집해를 했다는 의미에서 『성리군서구해』라는 이 책의 처음 명칭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後集의 『근사록』은 주희와 여조겸이 편집한 『근사록』에 熊剛大가 집해한 책이다. 조선시대에 통용되던 葉采의 『근사록집해』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수록분량이나 註解의 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점이 발견된다. 葉采集解本이 조목 수가 많고 註解는 간략한 반면, 이 책은 조목 수가 적은 대신 註解가 많다. 또 葉采集解本이 조목 말미에 註解를 몰아서 단 반면, 이 책은 본문 중간의 해당 부분에 곧바로 註解를 달았다. 註解의 분량이나 표기방식으로 볼 때 이 책이 葉采集解本보다 상세하고 친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본문의 경우 단락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아직 체제가 완비되지 못한 인상을 준다.

後集의 『근사속록』은 朱熹의 문인인 채모가 朱熹의 어록을 『근사록』의 체제에 따라 1227년에 편집한 후, 熊剛大가 집해한 책이다. 채모가 朱熹의 文集·語錄·四書集註·四書或問·三傳 등에서 본문을 발췌 편집했으며, 熊剛大는 본문을 풀이하거나 혹은 典據를 밝히기 위해 逐句解釋의인 방법으로 상세한 註解를 달았다.

後集의 『근사별록』은 『근사속록』을 편집한 채모가 朱熹의 교우인 장식과 여조겸의 어록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채모는 스승의 교우인 두 사람에게 대해 朱熹와 “生同時 學同道”했다는 명분 아래, 그들의 문집을 중심으로 중요한 학설을 뽑아 본문을 편집하였다. 이 책의 집해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註解의 체제나 방식은 『근사속록』과 거의 흡사하다.

결국 蔡模와 熊剛大 등의 합작에 의해 이 3종의 근사록류가 편찬되었으며, 이를 합본하여 기존의 『성리군서구해』에 갖다 붙임으로써, 새로운 ‘성리군서구해’ 즉, ‘신편성리군서구해’가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래의 『성리군서구해』와 나중에 편찬된 근사록류를 구분하기 위해 前·後集으로 나누었으니, 합본된 근사록류를 ‘신간성리군서구해 後集’으로 하면서 원래의 『성리군서구해』는 ‘신편성리군서구해 前集’으로 이름 붙이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서명 앞에 ‘新編’ 혹은 ‘新刊’이라는 용어가 붙게된 것은 이러한 전체의 편찬과정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한자의 훈수를 밝혀주기 위해 墨蓋子 등의 註解 처리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렇게 훈註를 가했다는 의미에서 ‘音點’이라는 용어가 서명에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상이 바로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後集이란 긴 서명이 이 책에 붙게 된 이유이다. 이 책의 서명은 편찬 경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집해방식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를 서명에 삽입하였다. 실제로 句解의 특성은 四庫全書本 『성리군서구해』나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後集을 통틀어 나타나고 있으며, 墨蓋子를 이용한 音點의 양식은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後集에서 드러나고 있다.

『성리대전』은 『성리군서구해』와 『근사속록』을 바탕으로 해서 편찬되었다고 한다. 『성리대전』 편찬시 諸儒의 語錄은 『근사속록』에서, 遺文은 『성리군서구해』(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前集)에서 뽑아 보충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는 역대 성리학자의 저술과 어록의 종합화를 지향한 산물로 생각된다.

그런데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前·後集의 경우, 宋儒의 저술을 담은 기존의 『성리군서구해』를 ‘前集’으로, 宋儒의 語錄을 수록한 근사록류를 ‘後集’으로 확대편집하면서 ‘新編’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성리대전』에서 시도했던 저술과 어록의 통합화를 의미한다. 즉, 근사록류를 합본하면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굳이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後集으로 명명한 것은 분명히 기존의 遺文集인 『성리군서구해』를 계승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前·後集의 완결은 이러한 통합화의 내적 욕구에서 비롯한 것이며, 『성리대전』에 앞서 이 책의 편찬자들은 새로운 편집을 통해 그러한 의도를 실현시켜 나갔던 것이다.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과 後集은 이렇게 朱熹 제자 그룹의 공동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결실이다. 따라서 이 책들이 朱子學的 색채를 강하게 띤 성리학 입문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이 책들은 모두 朱子 親傳 혹은 再傳弟子들에 의해 편집·집해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시기에 편찬된 성리서라는 가치를 지닌다. 前集 즉 四庫全書

본 『성리군서구해』는 13세기 前半에 편찬된 것으로 『성리대전』의 편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性理’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했다는 점에서 성리서의 先驅의인 의미를 갖는다. 後集의 熊剛大 集解本 『근사록』은 現存하는 주석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진 葉采의 『근사록집해』와 거의 동시대에 편찬된 책이며, 『근사속록』과 『근사별록』은 現存하는 『근사록』의 後繼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것이다.

또한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집해방식의 특성, 즉 상세한 풀이와 句解의 특징 및 焦點的 경향은 아동을 위한 성리학 입문서로서의 효용성을 한껏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동시에 이 책 자체의 한계로 작용하여 그 대가로 수준높은 성리서의 지위는 포기해야만 했고, 결국 이 책이 후대에 『근사록』과 다른 길을 걷게된 원인이 되었다.

이 책은 현재 국내에 상당히 많은 종수의 판본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世宗代의 刊記가 남아 있다는 것은 朝鮮 前期부터 이 책이 간행 보급되었던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 元版本의 원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世宗代 이전부터 중국에서 이 책을 수입하여 元版本의 형태, 혹은 그를 覆刻 刊行하여 학자들이 읽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의 이 책에 관한 자료는 15세기부터 16세기 前半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여말선초에 중국에서 수입된 신유학은 16세기에 이르러 학문적 심화과정을 거쳐 조선의 성리학으로 정착하는데, 이 책에 관한 자료에서도 그와 같은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즉, 이전의 『성리군서구해』를 단순히 독서하던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의문나는 곳을 토론하거나 이 책을 발췌하여 抄錄本을 편찬하는 등 16세기 중반 무렵에 오게되면 보다 진전된 학습형태를 보여준다. 李楨(1512~1571)의 『性理遺編』이 그 결실로서, 李楨은 『성리군서』와 『성리대전』을 발췌해서 1564년 『성리유편』을 편찬했다고 하는데,<sup>67)</sup> 그 내용을 보면 宋儒의 詩文이나 行狀 등 遺文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성리군서구해』를 참고로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sup>68)</sup> 따라서 이 『성리군서』는 사고전서본 『성리군서구해』(『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前集)일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조금 앞선 시기에 金正國(1485~1541)이 『성리대전』을 발췌해서 『性理節要』를 편찬한 것과 짝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sup>69)</sup>

이 책을 다루면서 조선시대의 간행보급 상황과 이해과정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지면이 부족하여 함께 아우르지 못하였다. 이는 별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 책에 대한 기존의 성과가 없었던 만큼, 판본별로 모든 내용을 정리하려다 보니 부득이 체제가 산만해지고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다. 읽는 분들의 양해를 바란다.

67) 『龜巖集』 別集 권1, 「性理遺編補錄跋」

68) 현재 규장각에 『性理遺編』이 2종 소장되어 있다. 初刊本으로 추정되는 <奎 6291>과 1902년 重刊本인 <古 1343-4>이다.

69) 『武陵雜稿』 別集 권6, 「新刊性理節要序」